

“가로수에 海水 투척 안돼요”

목포시, 횡집·수산물 가게 앞 염분피해 전수조사 적발 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 조치...연말까지 제도



목포시가 가로수에 바닷물을 버리는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평화광장, 북항 노을공원, 자유시장, 선창 등 시내 주요 지역 횡집을 비롯한 수산물 취급 가게

앞의 가로수 대상 염분피해 전수 조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횡집 등 수산물 취급 점포의 경우 바닷물을 하구수로 버리지 않고 인도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고, 인도나 도로변에 불법으로 수족관을 설치해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면서 가로수가 잇따라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앞으로 횡집 등이 밀집한 지역의 가로수를 주기적인 모니터링하고, 연말까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친 후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가로수 훼손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 행위자에게 손괴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철에 염분피해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닷물 무단방류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가 고사하지 않도록 피해에 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시청 공원녹지과(270-342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려청자박물관, 中 상림호월요박물관과 학술교류협정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14일 중국 저장성 츠시시(浙江省 慈溪市)의 상림호월요박물관(上林湖越窑博物馆)과 상호 학술문화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 10월 중국 측에서 먼저 초청 제의가 있었고, 11월 14일 츠시시에서 개최하는 제5회 월요청자문화제의 개막식에 맞춰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츠시시를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학술교류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소장 도자유물의 상호 대여 및 전시, 학술대회 등의 교류, 인적교류와 기타 문화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리주하오 상림호월요박물관장은 “두 박물관은 유사한 성격의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도 도자기술

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 두 박물관이 한중 도자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관 고려청자박물관장은 “학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현대생활에서 청자산업의 발전에도 상호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츠시시 상림호수 주변에는 당·송대의 청자요지 120여 개소가 분포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는 이곳을 전국중점문화보존단위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 청자요지를 월주요(越州窯)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려청자 생산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이다. 강진군의 고려청자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청자요지와 출토유물의 조사와 연구, 전시, 교육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망운면, 조금나루 유원지 바다청소 실시

원송현 마을주민과 함께한 바다 살리기 운동



무안군 망운면은 지난 13일 망운면 조금나루 유원지 일대에서 대대적인 바다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망운면사무

소 해양수산과, 원송현 어촌계, 부녀회 등 민·관 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대거 참여하여 조금나루 백사장 주변 송림 일대를 청소하

고 태풍으로 파손된 김발과 밀려온 바지선을 제거하는 등 20여 톤의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원송현 마을 맨스태 이장은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마을주민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마을어촌계를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자율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망운면은 매주 금요일 깨끗한 무안만들기’와 분기별 ‘바다청소의’을 지정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

영암군은 지난 13일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왕인학당 광장 일원에서 영암군보건소 주관으로 유관기관(영암경찰서, 영암소방서, 육군 제8539부대 5대대, 육군 31사단 화생방지원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사회적 혼란이나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탄저, 두

창, 페스트 등의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등을 사용하는 것이며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이다.

이번 훈련은 최근 국제적 테러 집단의 확산과 대북안보위협 등 생물테러에 의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 상황발생을 가정해 초동대응기관의 단계별 조치 사항을 시연하였는데 가상의 시

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처럼 재현하여 왕인박사유적지 왕인학당 광장에 거동수상자가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봉투를 버리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생물테러 대응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내용은 테러 인지 과정부터 상황 전파, 긴급 출동, 경찰의 출동자 통제 및 대피, 소방의 환경 검체 채취, 보건소와 군의 독소 다중탐지키트검사, 제독, 테러범 검거 등 실전과 같은 테러 대응이다.

장흥군 관산읍, ‘고추가 주렁주렁’ 행복출산 금줄치기



장흥군 관산읍은 12일 옥동마을에서 2019년 제5호 행복 출산가정

금줄치기 행사를 열었다. 금줄치기는 지역 사회단체 및 마을이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5호 행복출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을 출산한 관산읍 옥동마을 정모씨다.

마을 주민들은 정성껏 마련한 산모미역과 출산용품 등을 전달하

며 아이의 탄생을 축하했다.

금줄은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전통 새끼 금줄로 고추, 숲, 한지가 매달렸다.

위용태 옥당 이장은 “사람들이 많이 왕태하는 중심가에서 아기가 탄생하여 금줄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주 금줄을 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찾아가는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진도군이 찾아가는 흡연예방 인형극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인형극은 관내 24곳의 유치원 원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형극은 ‘백설공주와 뼈곰뱀

금 왕비’라는 친숙한 동화 캐릭터를 활용하여 흥겨운 동요와 재미있는 목소리로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력을 높여 흡연과 간접흡연 나쁜점을 쉽게 이해 시키고 있다.

또한 깨끗하게 손씻기, 양치하기 등의 일상에서 건강예방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인형극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인지하여 부모 등의 금연을 유도하며 미래 흡연을 방지하고 건강예방 생활습관을 가져 아프지 않고 밝게 웃으며 건강하게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